을 적셨다.

장 부장은 신입사원의 뺨이라도 칠 것처럼 양팔을 휘저었다. 말도 안 되는 게 가끔 자라기도 해! 어리석고 눈먼 것이 제 주제도 모르고 돋아날 때가 있어! 장 부장은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목구멍에서 토해지는 음성은 천박한 주정뱅이의 고성일 뿐이었다.

너 이놈의 새끼, 어린놈의 새끼! 네가 뭘 안다고 이 자식이!

분노와 취기에 젖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부장님, 취하셨습니다.

윤 차장이 곁에서 장 부장의 팔을 잡았다.

찬희 씨, 자랄 수 있어. 민들레도 아스팔트에서 자라잖아. 좁은 틈새로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식물이면 가능해.

윤 차장이 재빠르고 침착한 어투로 말했다. 신입사원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시선은 장 부장을 향했다. 장 부장은 윤 차장의 대답을 듣고 머릿속의 불길이 꺼지는 것 같았다. 장 부장은 그의 대답이 마음에 들었다. 휘젓던 팔을 내려놓고 허공을 응시했다. 그래. 그것은 분명히 있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곳에서 가느다란 뿌리로 벽을 뚫고 있었다. 윤 차장이 달래듯이 말했다.

부장님, 너무 취하셨는데 이제 귀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 부장은 고개를 돌려 윤 차장을 마주 보았다. 윤 차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서지 못하는 장 부장을 부축하는 모양새였다. 맥주병을 깬 후부터 직원들은 바짝 얼어서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장 부장이 입맛을 쩝쩝 다셨다. 너무 취했다. 너무 취해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지껄였다.

그래. 이제 가야지. 일찍 가서 자야 내일 출근을 하지.

장 부장은 뻣뻣하게 굳은 몸을 움직여 바닥에 떨어진 외투를 집어 들었다. 최 대리가 무어라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장 부장이 휘청대며 몸을 일으켰다. 눈동자의 초점은 잃었지만, 평소처럼 위엄 있는 표정으로 직원들을 향해 말했다.

다들 내일 지각하지 말라고. 나 때는 말이야, 새벽까지 회식해도….

부장님.

윤 차장이 말을 끊고 장 부장을 불렀다. 장 부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윤 차장을 돌아보았다. 예의 바른 윤 차장이 제 말을 가로막는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부장님, 내일부터는 일찍 일어나지 않으셔도 돼요.

윤 차장의 얼굴에는 안타까움이 묻어있었다. 그게 무슨 소리냐는 듯 장 부장이 눈썹을 치켜 올리자, 윤 차장이 망설이며 말을 이었다.

오늘은 부장님 송별회였잖아요.

*

너무 취하신 것 같던데, 혼자 가실 수 있을까?

윤 차장이 화장실 입구를 힐긋 돌아보며 말했다. 당혹감과 충격이 번지던 장 부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장 부장은 표정을 갈무리하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걸어갔다. 직원들은 장 부장의 뒷담화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퇴사하는 날에도 잔소리를 늘어놓는 상사가 곱게 보일 리 없었다.

장 부장은 퇴사할 때까지 이게 무슨 진상이래. 댁에 연락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최 대리, 몰랐어?

김 과장이 몸을 굽혀 한껏 목소리를 낮춘 채 말했다.

장 부장님, 3년 전에 이혼하셨잖아. 아이랑 사모님은 대전으로 가시고, 지금은 장 부장님 혼자 계셔.

정말요? 몰랐어요.

뭐 좋은 일이라고 동네방네 떠들겠어. 최근에 입사한 사람들은 모르는 게 당연하지. 안됐지, 뭐. 이제 저 나이에 이직도 쉽지 않으실 텐데.

장 부장님이 20년 근무하셨죠?

맞아. 어려울 때 입사하셔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대.

그렇게까지 회사에 헌신했는데 너무했지.

회사에 헌신하는 건 바보짓이라니까요. 화장실에 너무 오래 계시는데요? 잠드신 건 아니겠죠?

제가 가볼게요.

곰곰이 생각하는 얼굴로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신입사원이 장 부장이 떨어뜨린 외투를 챙기며 일어섰다. 신입사원이 꾸벅 인사를 하고 가방을 둘러매자 김 과장이 한시름 덜었다는 얼굴로 신입사원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 찬희 씨가 고생 좀 해줘.

신입사원이 화장실의 문을 열었을 때, 영준은 변기통을 붙잡고 내장 속에 있는 것들을 모조리 게워내고 있었다. 위액에 퉁퉁 불은 누르스름한 먹태가 변기 속에서 둥둥 떠다녔다. 황태도, 아니 인간의 살점도 되지 못한 먹태의 찌꺼기를 보고 영준은 더욱 서러워졌다. 누군가 자기 등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영준이 구역질을 멈추고 소매로 입가를 닦았다. 비틀대며 돌아보니 주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신입사원의 매끈한 얼굴이 보였다.

부장님, 집에 가셔야죠.

외투를 한 손에 든 신입사원이 말했다. 입꼬리가 축 처진 입을 힘겹게 움직이며 영준이 중얼거렸다.

있었어. 정말로, 그때는, 그런 것이 있었어.

영준의 꼬부라진 혀가 맥락 없는 단어들을 뱉어냈다. 신입사원은 고개를 푹 숙였다. 그는 영준을 위로하기 위해 신중하게 말을 고르는 것 같았다. 흰자가 깨끗한 눈이 장 부장을 마주 보았다.

> 장 부장은 꾸벅꾸벅 졸며 생기가 넘치는 그들의 일상을 묵묵하게 들었다. 가끔 그는 직장생활에 청춘을 갈아 넣지 않는 직원들이 야속했다. 인내하는 것이 미덕이라 여기는 삶을 요즘 애들은 도통 존경할 줄 몰랐다. 그 애들은 하고 싶은 것은 뭐든 하고, 싫으면 언제든 뛰쳐나갔다.

부장님, 이제 남미횡단 하실 수 있어요. 원하시는 것들, 다 하실 수 있어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린 영준이 몸을 휘청대자 신입사원이 다급하게 영준의 한쪽 팔을 붙잡았다. 영준의 얼굴이 창백하게 일그러졌다. 돼지는 고기가 되고 싶지 않았지만 고기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핏물을 빼고, 불판에 몸을 지지고, 고춧가루와 매운 마늘로 온몸을 절인 고깃덩어리에게 다시 돼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위로는 너무 가혹했다. 그것은 돼지고기를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다. 차라리 좋은 등급의 상품으로 취급해주는 것이 옳았다.

장영준 부장은 20년을 다닌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했다. 함께 책상을 비워야 할 동료 중 대부분은 오히려 후련한 표정을 지었다. 어차피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실업급여를 몇 달쯤 받을 수 있죠? 담담하게 내일을 이야기하는 이들 사이에서 영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 중 가장 큰 두려움을 감당해야 하는 이는 더 오래 근무했던, 더 나이가 많은, 더 많은 것들을 포기했던 영준이었다.

자리로 돌아온 영준은 컴퓨터도 켜지 않고 모니터의 검은 화면을 한참 바라보았다. 지친 얼굴이 검은 화면에 흐릿하게 비쳤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사무실은 평소처럼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와 여기저기서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로 분주했다. 그곳에서 영준은 고장 난 부품처럼 우두커니 앉아있었다. 칠이 벗겨진 철제 책꽂이를 바라보았다. 과장으로 승진했을 때 자리를 옮기면서 샀던 책꽂이였다. 책꽂이에는 모서리가 마모된 종이 파일이 빼곡하게 꽂혀있다. 삐걱대는 책상도, 바퀴 하나가 부러진 의자도, 영준과 함께 닳아있었다. 이제는 아픈 어머니도, 눈을 흘길 아내도, 책임져야 할 아이도 없다. 몇 번씩 자리를 박차고 싶었던 이곳을 겨우 떠날 수 있게 되었는데 영준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다. 컴퓨터의 전원을 누르자 비프음이 요란하게 울렸다. 삐삐삐삐삐삐. 무엇이 고장 난 것인지 영준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화장실 문밖에서 새어나왔다. 신입사원이 변기통을 정리하고 외투와 가방을 추스르는 동안 영준은 세면기를 양손으로 부여잡고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거울 속에서 미간과 입가에 주름 팬 반백 발의 남자가 영준을 바라보았다. 창틀에서 싹을 틔우던 그 풀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문득 창문을 열어보니 풀이 있던 자리에 빗물만 고여 있었다. 썩어 문드러졌는지 바짝 말라 부서졌는지 알 수 없었다. 솎아내야 했던 회한들 사이에 그 풀이 섞여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영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미처 발아하지 못한 그 풀의 씨앗을 찾으려는 것처럼 영준은 거울에서 시선을 거둘 줄 몰랐다. 〈끝〉

소설 당선 소감

“날마다 끈질기게 자랄 것”

임춘보 (본명 손보경)

-1987년 대구 출생
-계명대 건축공학과 졸업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편입

수험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소설을 썼습니다. 시험을 치고 합격예정자 발표를 기다리는 한 달 동안 단편소설을 한 편씩 썼습니다. 나는 3년 내내 낙방했고, 그 덕에 단편소설 여섯 편을 완성했습니다. 열등감과 불안을 잊기 위해 글을 썼는데 돌이켜보니 잊지 않기 위해 썼던 것 같기도 합니다. 세 번째 소설을 쓰고 나서 막연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능이 없어도, 끝내 응답받지 못해도,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쓰겠지라고. 금방 사그라들 호기심으로 치부했던 열정이 단단히 뿌리내렸다는 것을 뒤늦게 인정해야 했습니다.

당선 연락을 받은 후 밤잠을 설쳤습니다. 감히 꿈꿔본 적도 없는 길의 통행증을 손에 쥔 것처럼 기뻤지만 사실은 겁이 났습니다. 글쓰기는 늘 어려웠습니다. 나는 말을 갓 배운 어린애처럼 더듬댔습니다. 어떤 날은 말을 잃은 노인처럼 아무것도 토해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쓰는 것이 소설이 될 수 없을까 봐, 아무것도 담지 못하는 이야기가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앞으로도 깜빡이는 커서를 기약 없이 바라보는 날이 많겠지만, 지칠 때면 오늘 얻은 용기를 꺼내 쓰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무지렁이에게 과분한 상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쌓아만 두고 읽지 않은 책들이 부끄럽고, 글쓰기에 매진하지 못했던 어제도 아쉽습니다. 열심히 배워서 날마다 끈질기게 자라겠습니다.

빚진 이들이 많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지인들에게 졸고를 들이밀며 읽어달라고 괴롭혀왔습니다. 재미없는 글을 읽어준 홍과 미화, 이수에게 고맙고, 합평해주셨던 지인들에게도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해준 엄마에게 가장 고맙습니다. 어리석은 나를 인내해주고 보듬어주는 친구들과 고마운 인연들, 가르침을 주신 김종광 교수님, 손홍규 교수님, 서울디지털대학교의 문예창작학과 교수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신 전남매일과 심사위원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설 심사평

젊은 패기·새로운 시도 의지 돋보여

2022년 전남매일의 신춘문예에 응모한 원고들을 심사하면서 행간에 읽히는 젊은 패기와 새로운 시도를 향한 의지에 깊은 애정과 기쁨을 느꼈다.

그러나 서사가 박진감 넘치는 작품은 사유가 공허하고, 인간의 내면을 치열하게 탐구하고자 한 작품은 서사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식의 불균형이 흔히 눈에 띄었다. 한정된 공간 안에서 서사와 사유를 함께 다루기를 요구하는 단편소설이라는 장르에 대해 앞으로 더 뜨겁게 연구하고 모색하기를 당부한다.

마지막까지 당선을 겨룬 ‘창국아 내가 왔다’는 문장이 안정적이고 생동감 있는 장면과 인물의 묘사가 돋보였다. 5·18이 남긴 깊은 상처로 황폐해진 인간의 길고 오랜 아픔을 진정성있게 보여주었으나 결국 일정한 전형성과 상투성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웠다. 5·18이나 4·3항쟁, 위안부 문제와 같은 역사적 비극을 소설로 다루고자 할 때 작가들이 늘 부딪치는 거대한 벽이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그 자체로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거대한 역사적 비극 앞에 서면 허구와 상상력은 돌연 구차하고 초라해지곤 한다. 기록문학과 차별화하며 소설이 닿아야 할 문학적 성취의 고지가 어디인지 치열하게 모색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다.

당선작인 ‘싹’은 전형적으로 꼰대라 불릴만한 주인공의 내면과 외면을 균형적으로 묘사하며 그 비루한 괴리 사이에서 인물의 입체성을 확보하고 아연 페이소스를 자아내는 능숙한 솜씨로 읽는 내내 즐거움과 감동을 주었다. 거대서사나 기발한 설정에 기대지 않고도 삶 속의 흔한 장면들 속에서 얼마든지 참신하고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의 발굴과 전개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성취가 기대되는 재능있는 신인의 탄생에 축하를 보낸다.

심윤경 소설가

◇약력

2002년 자전적 성장소설 ‘나의 아름다운 정원’으로 제7회 한겨레문학상을 받으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2005년 ‘달의 제단’으로 제6회 무영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장편소설 ‘이현의 연애’ ‘서라벌 사람들’ ‘사랑이 달리다’ ‘사랑이 채우다’, 동화 ‘화해하기 보고서’ 등을 펴냈다.

동화 당선작

새벽 놀이터

자정을 넘긴 시각이었다. 도로를 달리는 차들도 없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었다.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는 한없이 조용하기만 했다. 그때 그네 밑에 있는 완충용 블록 하나가 들리더니 그 밑에서 검은색의 무언가가 고개를 빼꼼 내밀었다. ‘공’이었다. 공은 오래전부터 이 놀이터에 사는 수수께끼의 생물이었다. 공은 낮 동안엔 줄곧 놀이터 밑 땅굴에서 잠을 자다가 늦은 밤이 되어서야 움직이곤 했다. 밤이 되어야 사람들도 없고 놀이터가 조용해지기 때문이다. 공은 혼자인 게 편했다.

오늘 밤도 놀이터는 조용하기만 하다. 공은 텅 빈 놀이터를 차지하기 위해 그네 밑에서 빠져나왔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다.

“으악, 벌레! 아니 뭐야!”

옆 그네에는 한 여자아이가 앉아있었다. 보민이었다. 보민은 놀이터에서 아빠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보민의 아빠는 연락도 없이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다. 할머니께서는 먼저 자자고 했지만 보민은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았다. 결국 할머니께서 주무시는 틈을 타 보민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로 슬며시 나오고 말았다. 아빠를 조금이라도 일찍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러던 중 옆 그네 밑에서 갑자기 이상한 생물이 기어 올라온 것이다. 보민은 갑자기 튀어나온 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그네에서 자빠졌다. 공은 당황했다. 가끔 공이 놀이터에서 마주치던 사람은 고작해야 이상한 가면을 쓴 커다란 그림자들뿐이었다. 보민은 그들과 비슷한 가면을 썼지만, 너무 작았고 그림자도 아니었다. 공은 보민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다. 우선 보민을 일으켜줘야겠다는 생각에 보민에게 다가갔다.

“미안 놀라게 해서. 괜찮아?”

“악, 마, 말했다!”

보민은 더욱 놀라서 자빠진 채로 뒷걸음질을 했다. 울상이 된 보민을 보니 공은 다시 땅굴 속으로 돌아가고 싶어졌다. 자신은 사라지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공은 그대로 뒤돌아 기어 나온 구멍으로 다시 들어가려 했다. 그때 보민이 공을 불렀다.

> 공은 그네를 벗어나 미끄럼틀이 있는 놀이기구 위로 올라갔다. 놀이기구 위에는 색깔 점토 같은 것들이 사방에 흩뿌려진 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공은 미끄럼틀과 외나무다리, 전망대와 그물망 사이를 넘나들며 반짝반짝 빛나는 점토들을 먹었다. 보민은 그 빛나는 것들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자, 잠깐! 그, 저기… 다시 안 들어가면 안 될까? 안 무서워할 테니깐.”

보민은 공에게 조금씩 다가가며 쭈뼛쭈뼛 말했다. 늦은 밤 홀로 놀이터 그네에 앉아있기 너무 무서웠던 것이다. 너무나도 익숙한 집 앞 놀이터였는데도 밤이 되니 무척이나 달라 보였다. 뒤에서 무언가가 나타날 것만 같았고 동굴 모양의 미끄럼틀에서는 귀신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았다. 보민은 할머니 몰래 놀이터로 나온 것을 잠시 후회했다. 하지만 보민은 이 무서움을 이기고서라도 이 놀이터에 남아있어야 했다. 보민에게는 이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보민은 최대한 공포를 이겨내려고 했지만 가슴이 여전히 콩닥콩닥 뛰던 참이었다. 새벽의 놀이터는 썰렁해서 더 무서웠다. 그러던 때 바닥에서 공이 나타난 것이다. 보민은 공도 매우 무서웠지만 아무도 없는 놀이터보다는 덜 무섭게 느껴졌다. 처음 보는 생물이더라도 같이 있으면 훨씬 든든할 것 같았다. 보민은 공이 돌아가지 않길 바란다는 듯이 두 손을 깍지끼고 공을 바라보았다. 공은 돌아가고 싶었지만 보민의 말에 구멍으로 들어가는 걸 그만두었다. 배도 무척이나 고팠기에 공은 지상에 남기로 했다.

공은 그네를 벗어나 미끄럼틀이 있는 놀이기구 위로 올라갔다. 놀이기구 위에는 색깔 점토 같은 것들이 사방에 흩뿌려진 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공은 미끄럼틀과 외나무다리, 전망대와 그물망 사이를 넘나들며 반짝반짝 빛나는 점토들을 먹었다. 보민은 그 빛나는 것들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지금 뭐 먹는 거야?”

“에너지야. 낮 동안에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다가 흘린 에너지들을 먹고 있는 거야.”

“아이들이 에너지를 흘린다고?”

“응, 아이들은 에너지가 넘치는 데 반해 몸이 작으니까. 자꾸 이렇게 흘리는 거야. 이걸 그대로 놔두면 놀이터가 그 에너지를 빨아들여서 마구 날뛰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내가 먹어주고 있는 거야. 나는 아무리 먹어도 날뛰지 않거든.”

“놀이터엔 맨날 그게 쌓여?”

“그럼, 아이들이 놀다 간 날엔 항상 쌓여.”

“하지만 난 오늘 처음 봤는데.”

“이건 필요한 사람한테만 보이는 거야.”